

창간 5주년 사 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社是)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았다. 이제 한국종교계의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하게 된 우리는 지난 5년이 불국토 실현에 대한 희망을 잉태한 기간이었음을 자부하며 그 전망에 또한 자신감을 갖는다.

불교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종교다. 무엇보다 타력이 아닌 각 개인의 자력에 의한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책임에 무게를 두며 인간정신의 미신화와 비지성화를 경계한다.

생활속에서의 수행과 실천, 이를 떠나있는 불교라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올바로 실현하고 있다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의 생활화'를 첫번째 성성(淸淸)한 공안(公案)으로 세우

게 되는 이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첫째 내 안에 감추어진 불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불성은 팔정도(八正道), 즉 율바름(正)에도 있으며 계정해 삼학에도 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 그 율바름을 증거하게 해 준다. 모든 불자들이 생활속에 율바름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땅은 그대로 불국토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병든 마음 병든 정신으로는 아무리 불국토를 부르짖는다 해도 될 일이 아니다. 생활속에 불교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참회의 삶을 살자' '작은 실천 큰기쁨' '생명 나눔

의 실천' 등 캠페인을 통해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서 왔으며, 그 결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불교에서의 법계(法界)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품담고 있는 곳, 비유하자면 든든한 한개의 하드웨어가 아니겠는가. 그 속에서 현대에 맞는 무궁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곧

하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년만에 독자적인 불교종합정보센터인 '부다피아'를 개설, 불교계 최초의 전자신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의 불자만을 독자로 보지 않는다. 물론 국내에서 불교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불교의 교리와

교의 세계화가 궁극적인 목표며 불자 아닌 많은 세계인에게도 불성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지임한다. 해외 불교학 석학들의 결실을 널리 살피고 한국 큰스님들의 서구(西歐)사회 진출을 돕는 일 또한 우리들의 일이라 믿는다. 이미 한국 큰스님들의 법문은 서구사회에서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 시대, 인간의 시대 역시 이제 막 새벽을 맞고 있다. '눈뜬 시대'가 곧바로 불교에서의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리라.

2천5백여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살피신 평등법계가 이제야 인류의 자각속에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인류역사의 큰 방향 역시 정(正)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같은 믿음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게 한다. 우리는 그 희망을 향해 신문을 만들려 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정신의 시대, 마음의 시대를 빛낼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깨우침의 시대' 그 문명사적 큰 흐름의 물줄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새천년, '정신의 새벽'을 여는 데 우리의 힘을 보태려 한다.

새천년 '정신의 새벽'을 열자

불교의 현대화사업일 것이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내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방법, 미디어의 전파력으로 널리 법보시를 퍼는 방법 등이 예가 된다.

한편 미래 정보화 시대는 그 변화상을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의 발빠른 적응이 아야로 불교를 현대속에 더욱 빛나게

정신을 알리고 이들을 새로운 불교신자로 이끌어 들어가는 노력 역시 중요하며, 새로운 교계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고 한국 불교교단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 또한 소신있게 펴 보이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수행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국종교계 대표적 인 신문'은 이제 그 목표가 아니다. 불

인간사회가 안고있는 문제는 시대마다 그 특색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아니 미래에 나타날 문제점 해결에도 유효하다는 데 그 위대함이 있다.

인류는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 놀랄게도 '오직 하나뿐인 지구'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눈뜬 시대라고나 할까. NGO 대변되는 시민의 시대, 민중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 중앙신도회 회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6일 서울서초동 법원청사를 향의방문하고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총무원장 부존재를 판결한 담당판사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재판부 판결 명백한 오판" 재가단체들 잇달아 성명

"법원 종교단체 수장 선임 불교모독"

중앙신도회 우리는선우 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재가단체들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의 판결과 관련, 3~7일 잇따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재판부를 비판하는 한편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해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정략적 판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 비판: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6일 "사법부는 종단의 적법한 기구들을 통해 일마디 치유 가능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집행부 수장을 법원이 지명한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이천만 불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번 판결을 담당 판사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사도 6일 사부대중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만약 선거 절차상의 문제라면 현재의 종단질서와 체계 속에서 자주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선우(공통대표 남지심 박광서)도 같은 날 "판결의 중요하고 고려요소인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은 7일 "지해롭지 못한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로 야기된 현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경각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략적 판결 의혹 제기: 조계사 신도회(회장 김보현)는 3일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불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길들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문

을 숨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법)도 7일 "이번 판결은 한국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외부의 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불교자주권 수호 호소: 불불교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로 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유린당했으며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도 본사주지와 종회의원, 불교지도자들에게 "불교의 자주적 입장 견지와 종헌·종법의 수호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화회의의 비판: 재가연대는 정화개원회의에 대해 "종단의 화합을 저해하고 끊임없이 소모적인 분란을 조장함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했다"며 불교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의 즉각 종단을 촉구했다.

대불련은 7일 "정화회의는 더 이상 조계종단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참회·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불자들도 많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자 달라는 몇몇 불자들은 "세속법으로 불교의 일을 가름하는 일을 비난하는 스님들도 세속법에 의지해 맞서 싸울 하는 실정"이라며 "출세간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 과, 이에 따른 종헌·종법의 합리적인 구성·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려기사 6면>



◇조계사 출입구가 다시 폐쇄되고 철조망이 둘러쳐졌다. 이번 사태로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러 행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긴장감 감도는 조계사

출입구 5곳 철망방어 중무행정은 정상업무

●...총무원 2일 오후 상운 중심쪽 출입구만 남긴 채 조계사 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고 철조망을 두르는 등 정화회의의 진입에 대비했다. 조계사는 안내문을 통해 "지난 겨울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부족"이라고 밝혔다. 상운중심쪽 출입구에는 급히 철문을 설치했다.

6일 조계사에 들른 한 불자는 "법문할 때마다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스님들이 불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 2일 오후 상운 중심쪽 출입구만 남긴 채 조계사 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고 철조망을 두르는 등 정화회의의 진입에 대비했다. 조계사는 안내문을 통해 "지난 겨울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부족"이라고 밝혔다. 상운중심쪽 출입구에는 급히 철문을 설치했다.

6일 조계사에 들른 한 불자는 "법문할 때마다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스님들이 불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에 들어갔다. 또 콜라 5백 상자, 컵라면, 소화기 등을 청사에 비치했다. 총무원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총무원청사 출입문도 폐쇄하는 한편 왼쪽 철문만으로 출입자를 확인한 후 드나들게 하고 있다.

●...포교인 간를 출입문도 5일 폐쇄해 직원들과 방문자들은 찾집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열리는 조계사 기초교리강좌도 장소를 문화교육관으로 변경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사전시회, 사리천견법회, 자수후불명화전, 사찰도서 기획전이 이번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승적 등 각종 서류는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구족계 수계 산림과 경남지역 본말사주지 연수, 각 지역 포교사단 전문화교육도 예정대로 열린다.

정성운·김원우기자

현대만화

부처님법은 어디 두고...

"'실천승가회 정화회의의 주도' 판결문 내용 터무니없다"

실천승가회, 재판부에 '명예훼손' 고소할듯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 재판부가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실천승가회를 지난해 종단분규를 저지른 당사자로 매도했다"며 재판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천승가회 의장 청화스님은 6일 42부 재판장 이수형판사를 만나

"담당재판부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형판사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참조하여 판결문을 작성, 문제가 생겼다"며 "2심 재판에서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opia.com)

대불련은 7일 "정화회의는 더 이상 조계종단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참회·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불자들도 많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자 달라는 몇몇 불자들은 "세속법으로 불교의 일을 가름하는 일을 비난하는 스님들도 세속법에 의지해 맞서 싸울 하는 실정"이라며 "출세간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 과, 이에 따른 종헌·종법의 합리적인 구성·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려기사 6면>

취재1부(swjung@buddhopia.com)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합니다.

불교 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해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